



“젊은 농부들 모여 상부상조하니 농촌이 ‘꿈촌’ 됐어요”

광주 남구 대촌동 ‘젊농회’

2009년 대촌중 선·후배 의기투합
농사정보 교류하고 서로 일손 도와
주산물 고추 품질 전국구 명성얻어
마을의 굶은일 젊은농회가 술선수범
젊은 귀농인 늘어 마을에 활기 가득

“우리 마을은 모든 일에 청년이 앞장섭니다. 다른 농촌마을과 달리 마을 곳곳에 활기가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고향인 광주시 남구 대촌동 지역을 이끌고 있는 젊은 농군의 모임인 ‘젊농회’(회장 김광희)가 침체됐던 고향마을에 젊음의 힘으로 활기를 불어넣어 살기 좋은 농촌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새로운 농촌가족 문화를 일구고 있는 이들 때문에 추석에 외로운 독거노인이나 홀로 지내는 이는 대촌마을에는 없다.

지난 14일 대촌마을에서 만난 젊은농회 회원들은 자부심이 넘쳐났다.

대부분 회원들은 부모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은 농사를 짓거나 타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고향이 그리워 귀농을 한 경우다. 특히 젊은농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외지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마을로 모여들고 있다.

30~50세의 농민들이 주축인 젊은농회는 평균 나이 47~48세로 60~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인 농촌사회에서 찾기 힘든 청년 모임으로 2018년 현재 정회원만 43명에 이른다.

이 지역은 1960년대 후반 우리나라 최초로 비닐하우스 단지가 조성된 곳이지만, 이후 어느 농촌마을처럼 하우스 일을 할 농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령화를 겪어왔다.

대촌마을이 활력을 되찾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초 광주시 남구 대촌 일대 시설원예를 하는 대촌중학교 출신 선·후배들이 의기투합해 젊은농회를 만들면서부터다. 이들은 서로 농사정보를 교류하고 부족한 일손을 풀었이로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

서로 좋은 농사 정보를 교류한 덕분에 대촌에서 생산된 고추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입소문을 탔고, 현재는 전국에서 주문량이 밀려들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실제 대촌지역은 물빠짐이 좋은 양질의 토질과 풍부한 물 등 전통적으로 고추 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등 관련 시설을 제대로 완비한 게 고추의 품질을 높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들은 요즘도 3월, 6월, 9월, 12월 등 석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마을 현안과 농사 정보 등을 서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각자가 고추, 부추, 호박, 무 등을 재배하면서 작성한 농업 일지를 공개하고, 궁금한 것이나 좋은 농사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고 있다.

청년들이 주축이된 젊은농회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대촌마을에도 생기가 넘쳐나고 있다.

농촌 마을에서 협동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농회는 집안행사는 물론 일손 등을 거두며 두레와 품앗이 등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6~15개 동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가 일손을 거든다.

다양한 봉사활동도 젊은농회의 빼놓을 수 없는 활동 중 하나다.

이들은 시간이 날때마다 대촌지역 일대 환경정화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여름 지독한 가뭄때는 대촌농협과 협력해 관역방제기와 살수차로 눈에 물을 공급하는 등 농작물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또 마을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삶을 정착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집이 없던 이웃에게는 비어있던 집을 수리를 해 살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젊은농회의 활동이다.

올 여름 극심한 가뭄과 폭염은 젊은농회 회원들에



‘젊농회’ 회원들이 지난 3월 광주시 남구 월성동 무학초등학교에서 정기모임을 열고 새로운 농촌문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 남구 대촌동 일대 시설원예 농가들의 모임으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삶을 일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게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여기에 각종 농자재 가격까지 크게 올라 그 어느해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젊은농회는 힘들수록 더욱 똘똘 뭉쳐 변화하는 기후에 적합한 작물을 연구하고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가 아열대 기후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에 착안해 태국 대표 식물인 팍풍(PakkBoong) 재배 등에 도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시금치와 비슷한 맛이 나는 팍풍은 비타민과 칼슘이 많아 특히 허리통증과 당뇨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농회는 팍풍씨앗을 공수하는데로 비닐 하우스 3~4개 동에서 시범 재배할 생각이다.

김광희(48) 젊은농회 회장은 “청년이 농촌으로 들어와 활동해야 농촌에 미래가 있다.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적응 할수 있도록 회원들이 도와 함께 상생하는 농촌을 만든 것이 꿈이다”면서 “모임을 통해 회원들과 논의해 영농방법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팬옵티스, 리사트리, 심포니,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